



■ 우리 부서 이렇게 움직인다 4

# 기획부

(주)동방

하루가 다르게 제품빛깔을 푸르게 변화시켜 가는 가로수를 보면서 우리는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 행인에게 '그늘'이란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으로 여겨져 무척 흐뭇하다.

우리가 '젊음'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우선 생각나는 것이 '무한한 가능성의 내포' 내지 '잠재능력

실현을 위한 끊임없는 자기발전의 추구'일 것이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우리 축산업계도 젊고 유능한 고급 인력들로 옹골차게 구성된 업체가 있다.

(주)동방.

축산업과 관련있는 업체나 학계 또는 각 기관·단체는 물론 양축

□ 취재/함경숙 기자

##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능력 개발로 미래를 개척하는 고급 인력들의 구성체



가들도 그야말로 '비전있는 회사'라고 입을 모은다.

그 이유는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기 때문에 매사가 의욕적이고 야심만만하며 뭔가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꾸준히 도전하고 연구·노력하는 참신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난 77년에 동방화학 설립으로 출발하여 83년 3월 (주)동방으로 법인화되면서 기획부는 탄생했다.

그후 대양축가 서비스 강화를 위해 각종 세미나 개최는 물론 양축농가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제품개발을 위해 열성적으로 일해왔다.

특히 어느 한 분야의 신제품을 개발하면 한번씩은 동물약품 시장에서 판매 1위를 차지한다는 점과 많은 종류의 제품 보다는 몇가지 제품만을 생산, 판매하고 있어 실속있는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깥에서의 평가.

현재 총 17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올해의 매출목표액은 40억.

더우기 축산업계 특히 동물약품업계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다른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을 다시 모방하여 개발, 덤핑을 초래하는—모순을 과감히 탈피하여 독창적인 제품생산에 전력투구하는 점도 칭찬할 만한 점이다.

현재 양계분야의 제품은 린스마이신(첨가제, 주사제, 수용산), 린코마이신(첨가제), 네오마이신

### 젊고 유능한 고급 인력으로 구성된

(주)동방 기획부는

매사가 의욕적이고 야심만만하며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

오늘도 꾸준히 도전하고 연구·노력하는

참신성을 지니고 있어

축산업계에서는 '비전있는 회사'로

평가받고 있다

(첨가제) 등이 있으며 린스마이신은 항생제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다.

50여개 동물약품 회사중 꼭 필요한 사람 35명으로 구성된 (주)동방.

그중에서도 (주)동방의 Brain(뇌)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구축, 밝은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기획부.

김현주 대리, 이함희 주임, 박정호 연구원, 그리고 김유선씨가 한마음 한뜻으로 바로 그 역할을 멋지게 연출하고 있는 구성원이다.

김현주 대리.

수의학을 전공한 그는 고급 인력을 과감히 채용하고 전국적인 영업기반이 든든한 회사로 여겨져 (주)동방과 인연을 맺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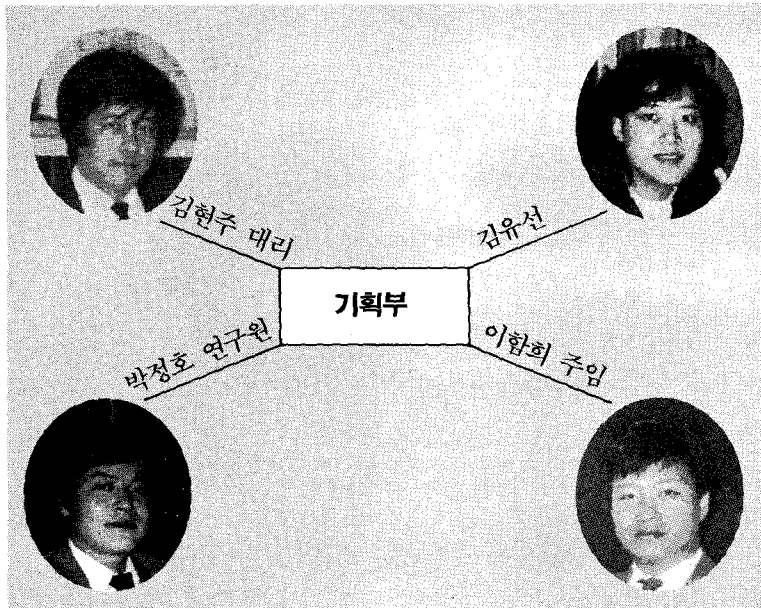
가무잡잡하며 건강미 넘치는 체격과 평소애 별로 말이 없고 분위기가 딱딱하게 느껴져 약간의 위

기감을 주기도 하지만 신속·정확하고 매사에 양보가 없는 일처리로 독재자(?)라는 말까지 듣지만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큰 일에 충실하다'고 강조하는 그는 기획부의 대장답게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함희 주임.

지난 86년 5월에 입사, 현재 18개월된 아들과 낯선(?) 애기엄마와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엮어가는 그는 기획부에서 중간 다리역을 담당, 윤행유로서 매월 개최되는 각종 세미나를 준비하고 문제농장을 방문, 해결사 노릇도 해야 하는 등 다소 업무가 많게 느껴졌는데 늘상 싱글벙글이다.

어려서부터 애완동물을 좋아했고 장래희망을 남(애완동물 또는 가축)을 도우며 살겠다고 결정한 것이 현재의 우리에게 서게 된 동기라고.



(주)동방 기획부의 4인방

**박정호**

88년 수의학과를 졸업하면서 (주)동방과 인연을 맺은 그는 기획부에서는 막내로서 꼭 필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지식(?)과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가는 완벽함을 기초로 생활하는 성실주의자.

각종 자료의 번역, 발췌, 정리, 제작 등을 주로 담당하는데 필요한 수의·축산분야의 관련서적이 사내에 고루 갖추어 있어 무척 도움이 된다며 은근히 자랑하기도.

누구나 그렇듯이 박정호씨도 양축가를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한 후 처방을 알려줘 질병치료후 성공담을 들려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말에서 소박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김유선**

그녀는 기획부의 세사람이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에서부터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내조하는 숨은 일꾼이다.

굵은 일, 귀찮은 일도 가리지 않고 늘 상 웃으면서 즐겁게 임하는 그녀를 처음 대한 순간 영광없이 부장집 맘머느리감이었다.

눈썹이 바람에 휘날리도록 전국

각지를 누비며 돌아 다니는 부원들이 최신 정보, 정확한 자료를 양축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끌어 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에 조금도 인색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수퍼우먼임을 실감케했다.

이처럼 (주)동방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기획부는 전직원이 '하나'가 되게 하는 디딤돌 역할을 거뜬히 하며 우리의 축산업 발전 및 자기 회사의 발전을 위한 앞잡이가 되기 위해 하루를 스물네시간이 아니라 48시간으로 쪼개서 뛰어가고 있는 것이다.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지 않는 부서.(그래서 모두들 눈이 큰가보다) 모두가 재주꾼인 멋진 사람들.

각 책상마다 놓여진 화초가 무럭무럭 싹씩(?)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희망찬 미래가 곧 다가올 것같이 여겨졌다.

불확실한 미래의 개척을 위해 서로의 손을 굳게 잡으며 힘찬 웃음을 짓는 모습에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양기**

※「우리 부서 이렇게 움직인다」에  
동참을 원하는 업체에서는  
저희 편집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588-7661~4